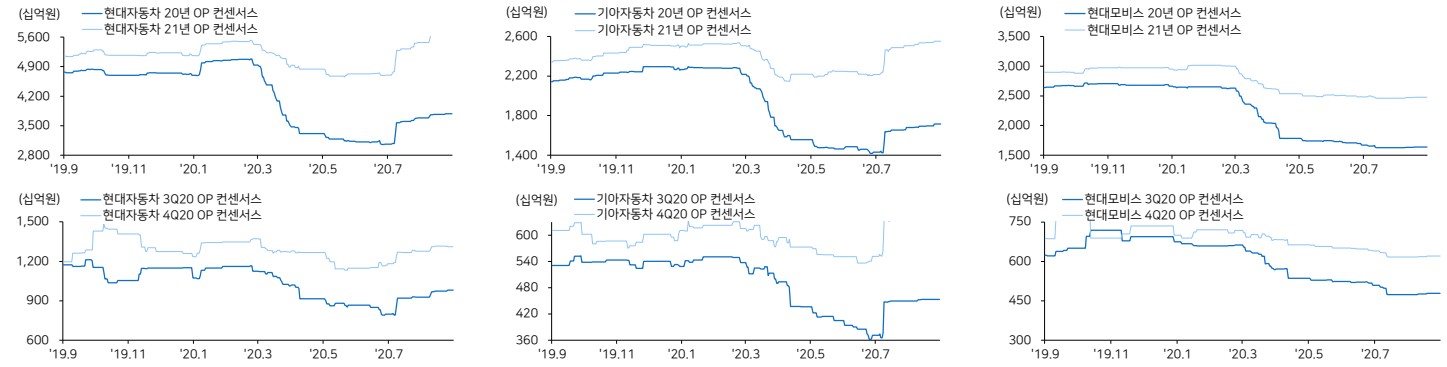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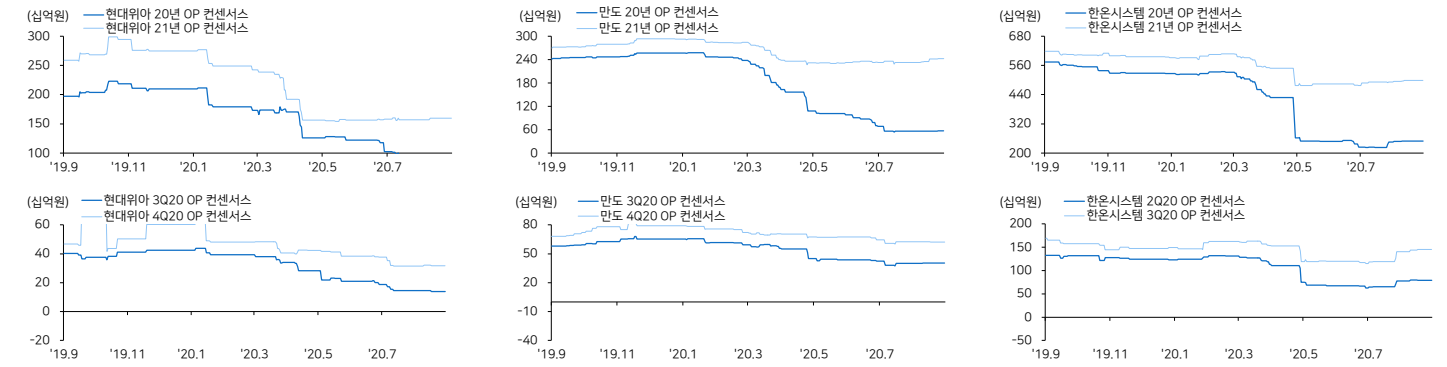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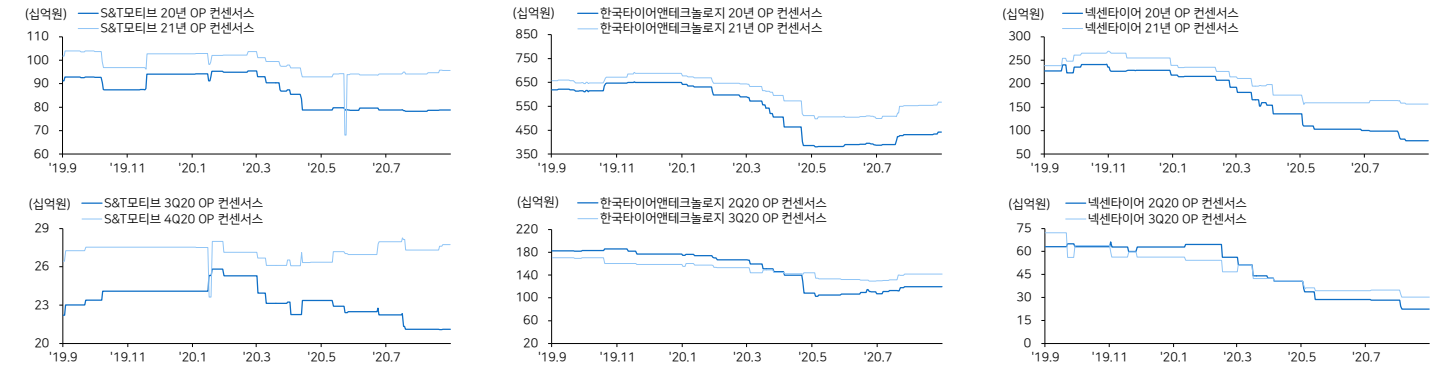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의 주요 뉴스

### GV80 미국 투입 '초읽기'...제네시스 하반기 판매 이끌 '침방' 될까 (아시아투데이)

제네시스의 첫 SUV 'GV80'이 미국 진출을 눈앞에 둔. GV80은 미국 내 수요가 많은 프리미엄 대형 SUV를 기존 G70, G80, G90 등 세단에 평행한 제네시스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현지 점유율을 끌어올릴 핵심 카드.  
<https://bit.ly/3bWuopE>

### 日 승용차시장 철수 11년만에...현대차 '친환경차'로 다시 만난다 (동아닷컴)

11년 전인 2009년, 일본 승용차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철수했던 현대차가 16일부턴서 일본 소비자들을 다시 만난다. 당장 판매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친환경차 브랜드'로서의 현대차의 경쟁력을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  
<https://bit.ly/3bWlRlt>

### 현대차 수소 에너지 유럽에 알린다 'H2U(Hydrogen to you)' (충남일보)

현대자동차는 수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H2U' 캠페인을 진행. 현대차는 넥소를 통한 수소 기술의 혁신적인 이미지 선전 및 수소 에너지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캠페인의 시작을 유럽 독일로 선정.  
<https://bit.ly/2FBnsC1>

### 현대차, 쉐서 투산 18만 대 리콜...화재 위험에 아야 주자 당부 (KBS뉴스)

현대자동차가 차량 브레이크잠김방지시스템(ABS) 결함으로 인한 화재 우려를 이유로 미국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투싼 차량 18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  
<https://bit.ly/3bVx2vZ>

### 정의선 체제 2년...현대차 첨단 모빌리티 기업 변신...지배구조 개선은 과제 (서울경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그룹 전면에 나선 지 14일로 2년을 맞이함. 정 수석부회장이 그룹 경영을 총괄한 후 현대차는 첨단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신에 속도를 냈으며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음.  
<https://bit.ly/2FDt1pi>

### 기아차, 새로운 대형 SUV 출격준비..."픽업트럭도 진행" (지피코리아)

기아자동차가 픽업트럭과 함께 새로운 대형 SUV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자동차매체 모터링은 "미드 사이드 픽업 트럭을 준비 중인 기아차가 토요타 Prado 및 닛산 Patrol과 같은 대형 SUV도 곧 선보일 것"이라고 전망.  
<https://bit.ly/2RlFefD>

### 현대차-인원시, 스마트시티 협약...'부르넝 오는 버스' 늘린다 (연합뉴스)

현대차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스마트도시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해 이용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  
<https://bit.ly/2Fq8nnk>

### 포드-폭스바겐·혼다-GM, 자동차업계 동맹 열풍...부품사들 '기회' (뉴시스)

코로나19로 전세계 차량 판매·생산이 급감하면서 미국의 대형 자동차 제조사 간 동맹이 이어지고 있음. 비용 절감이 목적으로 보이는 이같은 행보가 한국 부품사에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https://bit.ly/33ob2pz>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